

1910년대 한·일 왕실 이미지의 형성과 유통

『京城日報』와 『每日申報』의 한·일 왕실 기사 및 이미지

황빛나·이성례·김지혜

I. 머리말

黃빛나

韓國美術研究所 研究員
梨花女子大學校
美術史學科 博士課程 修了
韓日近代美術史

李聖禮

韓國美術研究所 研究員
梨花女子大學校
美術史學科 博士課程 修了
韓國繪畫史

金芝慧

韓國美術研究所 研究員
梨花女子大學校
美術史學科 博士課程 修了
近代繪畫史

조선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한국 왕실 문화 관련 자료들은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官報』와 같은 공식 기록물을 통해 그 실상을 유추해 왔고,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보존, 관리 및 DB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왕실에서 행한 각종 의례 및 생활상 등을 기록한 1차 사료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웹 아카이브가 개설되고, 일반 대중도 이해하기 쉽도록 해제를 곁들인 왕실문화 총서류가 출간되어 관련 연구자와 대중의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 이후 한일 강제 병합과 해방에 이르는 한국 근대기의 대표적인 기록매체인 신문에 게재된 한일 왕실 관련 기사 및 이미지 자료의 DB화 작업은 학계와 연구기관 양자 모두에서 진행된 바 없다.¹

근대에 탄생한 대중매체인 신문은 오늘날 사회·문화사를 포함한 인문학 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1-EBZ-2102). 두 신문의 기사 및 이미지 목록은 지면관계상 특별부록으로 별도 수록했다.

** 필자의 최근 논저: 황빛나, 「재조선 일본인 화가 구보타 덴난(久保田天南)과 朝鮮南畠院」, 『美術史論壇』34, 2012. 6; 이성례, 「미술비평가 나혜석」, 『美術史論壇』35, 2012. 12; 김지혜, 「나혜석, 삽화로 읽는 근대기 여성의 일상」,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16, 2013. 4.

¹ 한국과 일본의 경우 근대기 각각 '왕실'과 '황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양자를 통칭할 때는 '왕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영역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06년 통감부의 기관지로 창간된 『大韓每日申報』(이후 『每日申報』로 개칭)와 『더 서울 프레스 The Seoul Press』(영문판)를 흡수·병합한 조선총독부의 일문 기관지인 『京城日報』는 조선의 왕실이 주체가 되어 기술한 기록물이 아닌 조선총독부의 일제강점기 식민지 문화통치 역사의 구체적 사료라는 측면에서 타자에 의해 구축된 조선 왕실의 공적 이미지의 유통상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자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조선뿐 아니라 만주, 대만, 사할린과 같은 식민지에서 발행된 총독부 기관지에 게재·유통된 조선 왕실 관련 자료와 근대기 일본 신문에 게재된 한국과 일본의 왕실 관련 기사 및 인물사진을 포함한 시각이미지까지 아우른 총체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한다면, 근대기 한일 왕실 문화 전반을 복원하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필요성에도 『경성일보』의 경우 1915년 이전의 원본이 대부분 소실되고 영인본과 마이크로필름으로 확인 가능한 지면이 1915년 이후로 한정적일 뿐 아니라, 그 상태도 대부분 열악하여 판독이 어려웠다. 또한 신문에 게재된 이미지의 세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나머지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미술연구소에서는 2011년 12월부터(2013년 11월 30일 완료 예정)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에 수록된 ‘미술’ 이미지와 관련 기사의 국내외 수집, 발굴 및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필자들은 위 연구의 진행 중에 근대기 왕실 관련 기사 및 이미지 자료가 갖는 중요성을 절감하며, 앞서 언급한 조선총독부 기관지 2종에 게재된 조선 왕실 문화 관련 기사와 시각이미지의 조사 및 수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정리된 일부 목록을 수록하고자 한다. 또한, 1910년대 양 신문에 게재된 한일 왕실 관련 기사들은 지면 관계상 전문을 공개할 수 없기에,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기사의 성격과 지면 구성의 특징, 인물사진의 성격에 관한 간단한 해제를 덧붙이고자 한다.

향후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국문 민족지 및 해외 소재 신문(1890~1945)에 게재된 근대기 한일 왕실 문화 관련 기사와 이미지 자료의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그간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왕실 미술 관련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근대기 한국 왕실 문화 관련 시각 이미지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II.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의 창간 배경 및 성격

『경성일보』는 통감부의 일본어판 기관지로 출발하여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입장을 가장 극명하게 대변한 매체였다. 1910년 8월,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고 총독부 기관지 이외의 모든 신문을 폐간했는데, 통감부는 『대한매일신보』를 매수하여 ‘大韓’을 떼고 『매일신보』로 개명한 후 일본 『고쿠민신분(國民新聞)』의 사장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가 운영한 경성일보사에 통합했다. 『경성일보』와 동일한 발간목적으로 제작된 『매일신보』는² 1910년대 유일한 국문신문이자 중앙지로서, 식민지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유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³ 또한, 총독부의 재정 후원에 힘입어 최신 사진 인쇄기술을 신문 제작에 도입했고 사진을 보도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⁴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높은 시각적 흡수력으로 보도 내용을 전달했다.

두 신문은 제호 디자인과 기사의 배치를 전환하거나, 문예란을 확장하고 삽화·사진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면 변화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끌며 대중지로 자리잡았다. 『경성일보』는 조·석간 각 4면을 기본으로 발행되었으나, 조·석간이 통합되거나 신년호는 基一, 二와 같이 24면까지 추가로 지면을 구성하는 등 변화가 많았다. 또한 1920년대부터는 조건, 혹은 석간이 6~8면으로 증가되는 판형을 유지하다가 폐간이 가까워지는 1943년 이후부터는 다시 조·석간 통합, 4면 이하로 축소 발행되었다. 왕실 관련 기사는 대부분 3면에 실렸으나 공진회나 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될 때는 1면이나 2면에도 게재되었다.

『매일신보』는 지면이 4면의 大版형이며, 특집 지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면은 7단으로 구획되었다. 1910년대 초에는 일본 황실 사진이 주로 1면 중앙에 게재되었

² 도쿠토미 소호는 훈시 글을 통해 “『매일신보』가 신문지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황폐하의 仁愛하심과 일선인 一視同仁 하심을 받들어 이를 조선에 선전함에 있고,…… 『매일신보』는 『경성일보』와 제휴하고 형식 그 보조를 동일하게 할 것”으로 규정했다. 황민호,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언론정책과 『毎日申報』」, 『수요역사연구회 편,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 1910년대』(신서원, 2003), p.19.

³ 1910년대 『매일신보』는 총독부의 언론 통제 속에서 일제의 동화주의나 문명개화와 같은 식민지 지배 담론을 적극 유포했다. 김진두, 「1910년대 『매일신보』의 성격에 관한 연구: 사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9 참조.

⁴ 매일신보사는 1912년부터 고속윤전인쇄기와 망판 사진인쇄시설을 신설하는 등 최신 사진기술을 도입했고, 자체 광고를 통해 ‘독자제군의 취미를 돕기 위해’ 사진동판을 매일 게재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매일신보』, 1912. 3. 1. [3]. 김선영, 「신문사진의 등장과 한국 근대대중의 출현: 1910년대 『毎日申報』 군중사진을 중심으로」(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2010), p.36에서 재인용.

고, 조선 왕실 인물의 동정과 식민통치의 정황을 보도한 기사는 대부분 2면에 이미
지 없이 활자로만 인쇄되었다. 그러나 1912년 이후에는 3, 4면을 한글 면으로 전환
하면서 지면 구성도 변화하여 2면에도 왕실 기사와 함께 사진이 실리기 시작했다.⁵

일본 황실과 조선 왕실의 이미지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모두 1910년대 초
부터 게재되었는데, 일본 천황 부부를 비롯한 황족의 초상과 행사 장면을 담은 사진
이 주류를 이루었고, 어필도 일부 포함되었다. 초상 사진은 기존에 실린 사진에서 프
레임만 변경하여 『매일신보』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진의 프레임을 도안하
는 방식은 『경성일보』의 황실 초상 사진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일례를 보면, 『경성일
보』 1909년 1월 1일자에 실린 메이지 천황의 초상 사진은 좌우로 일장기가 장식된
타원형의 프레임 속에 배치한 후 사진들과 화면 가장자리에 국화문을 빼곡하게 그
려 넣었는데, 같은 신문 1911년 신년호 초상 사진에서는 사진은 1909년 것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프레임은 사각형으로 바꿨다. 또한, 액자형의 프레임 내부는 린파(琳
派)풍의 도안으로 장식했다. 그러나 19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성일보』와 『매일
신보』 모두, 사진의 프레임은 사각형이나 아치형 등으로 고정되고 장식도 빗살문이
나 점선 등으로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III. 인물사진을 통해 본 한일 왕실 이미지의 구성과 재현 방식

일본의 메이지기는 국가 시스템이 마련되고, 제도 개혁과 국가정체성 구축을
통해 제국으로 부상한 시기로,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1852~1912)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이자 정복군주로, 쇼켄 황후(昭憲皇后, 1849~1914)는 良妻賢母의 모범으로
표상되었다. 여기에 천황의 대를 잇는 요시히토 황태자(嘉仁親王, 훗날 大正天皇)
가 결합하면서 萬世一系の 皇統이 가시화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황태자를 공식화하
여 가족을 형성한 시점에 맞춰 차세대 국민 양성과 그것의 토대가 되는 가정의 재편
성에 힘을 쏟는데, 황실 일가가 만들어낸 ‘행복한 2세대’ 이미지는 ‘모범적인 가족’의

⁵ 1910년대 『매일신보』 지면별 기사내용을 보면, 1면에는 주로 사실과 漫筆, 총독부공문, 告示, 外事
片言을 비롯해 국내 토지법, 도로교통, 교육, 殖産業 관련 기사, 詞藻와 신소설을 소개한 문예란과
천기예보, 2면에는 電報, 外報, 위상지방통신, 일제 고위간부 및 조선 왕족의 동정과 식민통치의
정황을 보도한 기사들, 3면에는 새로운 고시나 각 지방민의 신변잡사를 비롯해 조합, 학교, 종교기
관과 실업인의 동정, 미가지수의 등락과 민간경제 상황, 독자투고란, 광고, 4면에는 신소설과 광고
를 게재하거나 전면을 광고 지면으로 활용했다. 김선영, 위의 글(2010), pp.31-32.

모델로서 황통 계승의 정당성을 알렸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중국 및 일본과 동일한 황국으로서의 면모와 체계를 갖추기 위한 내외적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1910년 강제 병합으로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천황제 시스템에 종속된 왕족으로 이미지화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나타난 메이지 천황 부부를 비롯한 황실 일가와 관련한 사진 이미지를 살펴보고, 황실의 공적 이미지가 구축되는 과정과 국가가 전통을 만들어낸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일본 천황과 황후의 대표 초상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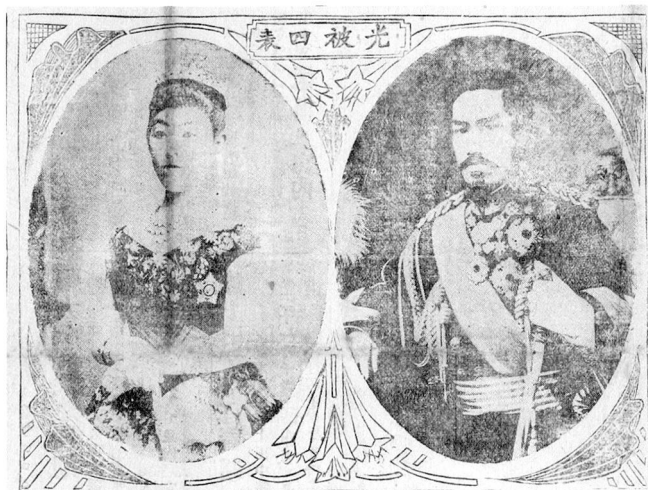
일본은 1889년 메이지 헌법을 반포하여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선포했고, 이듬해에 敎育勅語를 반포하며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교육칙어는 국민에게 군국주의와 국수주의 의식을 심는 역할과 함께 무사의 가족제도를 전 국민이 준수하는 가족제도로 절대화하여 가족국가관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했다.⁶

모든 권력이 집중된 천황은 유럽 군주들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훈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한 손에는 칼을 든 채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미지화되었는데, 이는 『경성일보』 1909년 1월 1일자 1면, 1911년 1월 1일자 1면을 비롯하여 『매일신보』에서도 수차례 발견된다. 대외적으로는 문명국으로서의 입지를 세우고 대내적으로는 ‘남성의 국민화’를 목표로 한 천황의 복식은 이후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천황의 도상에도 이어졌다. 이것은 『매일신보』 1912년 7월 31일 2면의 「皇位와 御踐祚」, 『매일신보』 1912년 8월 13일 1면의 「御馬上的 今上天皇陛下」, 1914년 8월 25일 3면 「觀하라! 東洋盟主의 威力을」을 비롯해서 『경성일보』 1918년 1월 1일자 1면의 「말 탄 모습의 성상 폐하(御馬上姿의 聖上陛下)」 등의 기사에 게재된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메이지 시대에는 서구의 현모양처 개념이 유입되면서 근대적 여성상이 형성되는데, 여성을 국민의 구성원으로 겨안는 과정에서 여성의 성 역할 고정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쇼켄 황후의 이미지가 적극 활용되었고, 황후는 일본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상황에서는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근대적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부

⁶ 김순전 외 12명 공저, 『수신하는 제국: 명치·대정기 『심상소학수신서』연구』(제인앤씨, 2004), p.83.

부상을 가시화하고 국가에 동원된 여성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상황에서는 양장을 착용했다.⁷ 특히 천황과 함께 양장을 입은 황후의 사진은 국민에게 남녀평등의 환상을 심는 데 일조했다. 『매일신보』에서도 1911년 8월 29일자 1면에 한일 강제 병합 1주년을 맞이하여 ‘光被四表’⁸이라는 제목으로 메이지 천황 부부의 사진이 나란히 게재되었고, 1912년 1월 1일 1면에도 천황 부부의 사진이 동일한 프레임에 ‘聖壽萬歲’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처럼 드레스를 착용하고 화려하게 장엄화한 황후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양손을 모은 채 서 있는 사진은 『매일신보』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황후가 태어난 날인 地久節을 기념하며 게재된 『매일신보』 1911년 5월 28일 2면과 1912년 5월 28일 1면에는 전신입상의 황후 사진이 실렸는데, 같은 사진은 메이지 천황 사망과 함께 황후가 황태후가 된 이후인 1913년 5월 28일자 신문 2면에도 여전히 등장한다. 열강의 왕비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모습의 황후 이미지는 이후 다이쇼 천황의 부인 데이메이 황후(貞明皇后), 쇼와 천황의 부인 고준 황후(香淳皇后)에게도 발견되며, 이는 『매일신보』 1912년 8월 1일 2면에서 황태후와 함께 게재된 데이메이 황후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일신보』에서 황후의 사진이 천황과 함께 1면에 게재되거나 혹은 황후의 생일을 기념한 ‘지구절’ 보도에서 단독으로 실린 예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경성일보』에서는 황후와 관련한 기사만 실려 있고 부부의 사진이나 황후의 단독 사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1910년대 『매일신보』에 십여 차례 게재된 쇼켄 황후의 초상은 같은 사진을 원본으로 한 것으로, 타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편집된 상반신 이미지, 또는 전신상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⁸ 대부분 기사난의 틀에 맞춰 사각형의 원본 사진을 그대로 실

1
「光被四表」
『毎日申報』 1911. 8. 29. [1]

⁷ 유모토 고이치,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옮김, 『일본 근대의 풍경』(그린비, 2004), pp.302-303; 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석, 『황후의 초상: 쇼켄황태후의 표상과 여성의 국민화』(소명출판, 2007), pp.69-81.

⁸ 쇼켄 황후의 초상은 『매일신보』의 1911년 5월 20일 1면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28일과 8월 29일, 1912년 신년호와 5월 28일, 8월 2일, 1913년 5월 28일, 1914년 신년호와 4월 12일, 5월 24일에 모



2
「天皇陛下, 皇后陛下 聖壽無疆」
『毎日申報』1913. 10. 31. (1)

었으나, 사진에 타원형이나 액자형, 아치형 등의 프레임 그러 넣어 클로버 같은 꽃문양이나 초문 등 아르누보적인 문양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1914년 5월 24일 1면 「皇太后御大葬奉悼」에서 사용된 사진들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문과 황후를 상징하는 봉황 문양을 활용하여 황실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화려한 장식 효과를 가미했다. 황실 초상 사진 프레임 장식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문양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일본 황실 사진에 국화문이 주로 장식되었듯이 조선 왕실의 초상 사진에는 이왕가를 상징하는 오얏꽃 문양이 도안되었다.⁹⁾

2. 일본 황실 가족 이미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는 천황과 황후가 나란히 있는 사진을 비롯하여 이들 부부 초상에 자식이 결합한 가족 초상이 자

주 등장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황실=국민의 宗家, 천황=국민의 父, 국민=천황의 赤子'라는 관계를 규정하는 가족국가관을 인지시킨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 1913년 10월 31일 1면 「天皇陛下, 皇后陛下 聖壽無疆」²⁾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천황과 황후의 사진 중앙에 황태자의 사진을 함께 실거나, 1914년 1월 1일자 1면의 「聖壽無疆 大正三年」에서 다이쇼 천황 아래에 황후를, 황후 아래에는 황태자의 사진을 실어 황태자가 천황의 대를 잇는 적장자임을 드러냈다. 1916년 11월 3일자 1면 「奉賀立太子之禮」에는 황태자의 입태자일을 기념하여 황태자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했다.

두 같은 사진이 수록되었다.

⁹⁾ 1915년 2월 4일 『매일신보』에 실린 고종의 초상 사진은 아치형의 프레임 상단에 일곱 송이의 오얏꽃을 배치하여 장식했다.

이 밖에 결혼식이나 결혼기념일, 장례식과 같은 황실 패전트(pageant)를 담은 사진 이미지는 만세일제 이념에 입각한 근대화된 가족도상을 각인시키는 데 일조했는데, 이와 같은 황실의례는 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의 정체성과 천황 및 황실 이미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3. 조선 왕과 왕비의 초상 제작과 유포

고종의 사진이 『매일신보』에 단독 게재된 것은 1915년 2월 4일자 3면에서다. ‘덕수궁 리태왕던하’라는 제목에 3단 크기로 배치된 사진 속에는 단발령 시행으로 가르마를 한 하이칼라 머리에 훈장이 달린 양복을 입은 고종이 한 손에 칼을 쥔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의 상단은 이왕가를 상징하는 오얏꽃으로 띠를 두르듯 장식했다. 이 사진은 1916년 1월 1일자 신년호 제2의 2면 「新年的 兩宮」에도 게재되었는데, 나란히 실린 순종은 朝服을 착용한 모습으로 通天冠을 쓰고 絳紗袍를 입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경성일보』에서는 영친왕과 관련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데, 고종이 승하하기 1년 전인 1918년 영친왕과 함께 선원전에서 예를 올리기 위해 덕수궁 함녕전을 나서는 모습을 다룬 1918년 1월 16일 2면 「이태왕전하 선원전 전알(李太王殿下の璿源殿御展謁)」^{도3}이나 『경성일보』 1918년 1월 24일 3면의 「23일 석조전에서 열린 왕세자 오찬회에 이태왕전하가 진귀한 실크모자에 프록코트를 입고 가마를 타고 가심(二十三日石造殿で催うされた王世子の午餐會に李太王殿下は珍らしくシルクハットにフロックコートを云ふ御姿で藍輿に召されて赴がねた)」이라는 부제가 있는 「李太王殿下」 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왕전하 선원전 전알」에서 고종이 신료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모습이나 영친왕의 귀국 소식을 듣고 외출에 나서는 모습은 강력한 군주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순종의 이미지 역시 강력한 권위와는 거리가 있는데, 같은 시기 집권한 다이쇼 천황이 강력한 집권 군주로 강조된 메이지 천황과 마찬가지로, 신식 군복을 입고 검을 들고 있거나 말을 탄 모습으로 『경성일보』와 『매일신보』 1면에 등장하며 위엄과 권위를 드러낸 것과 대조를 이룬다. 게재된 사진의 숫자에서도 일본에서 교육받고, 일본 황족과 결혼한 영친왕이 고종과 순종의 사진을 합친 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919년에 사망한 고종의 경우, 1912년에 사망한 메이지 천황과 엇비슷한 숫자로 게재되어 조선 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메이지 천황과 쇼켄 황후의 사진이 공식적인 어진영으로 배포



◇李太王殿下の璿源殿御展謁
李王世子殿下を伴ひたまひて

된 것과 달리 조선 왕실의 경우 명성황후의 초상은 찾아보기 어렵고, 고종의 단독 사진이나 고종이 외교적 공간에서 세자와 함께 있는 사진만 제작 유포되었다. 사진이라는 매체가 도입되고 어진의 제의적 기능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개화기에도 황후가 재현의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은 조선이 내외법이 엄존하고 부계혈통 중심 체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임을 보여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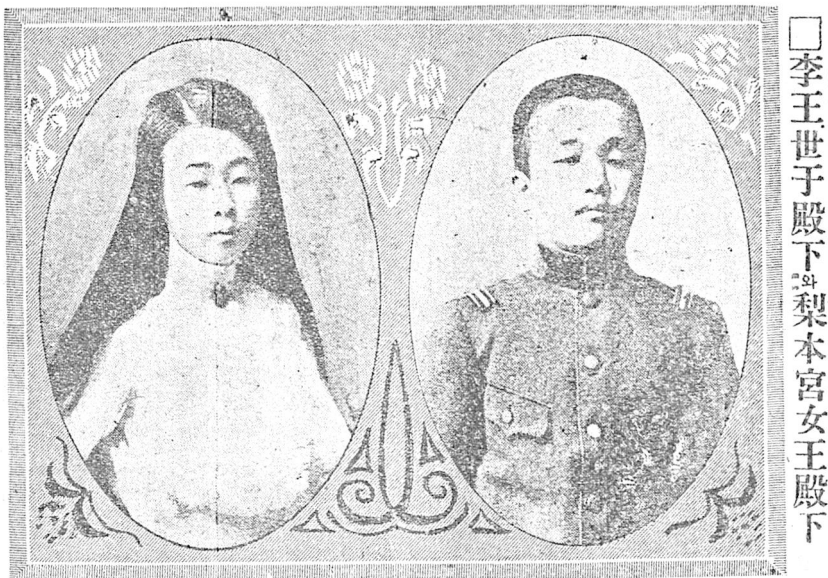
이후 고종의 계비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엄비와 순종의 황후인 순정효황후의 사진은 『매일신보』에서 확인

3 「이태왕전하 선원전 전알(李太王殿下の璿源殿御展謁)」
『京城日報』 1918. 1. 16. [2]

되는데, 엄비는 1911년 7월 21일 2면에 보도된 「德壽宮嚴妃薨逝」 기사를 비롯하여 1916년 8월 4일자 3면의 이왕세자 혼의 관련 기사에서는 모자를 쓰고 양장을 착용한 이미지로 게재되었고, 1918년 1월 19일자 3면 엄비의 묘소인 영희원을 참배한 영친왕의 기사에서는 전통 예복을 착용한 사진이 실렸다. 순정효황후는 『매일신보』 1916년 1월 1일 신년호 제4의 2면에 누에치기를 장려한다는 의미의 친필 「勸蠶」과 함께 어여머리를 하고 圓衫을 입은 채 綬帶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팔 아래로 두른 반신상이 게재되었다. 1917년 9월 20일 3면 「이십스세를 마지시느 리왕비면하」라는 소재목이 있는 사진에서도 동일한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1915년 6월 23일 3면 「창덕궁 친잠실에 리왕비면하의씩읍서 슈견식을 행함」과 1915년 10월 23일 3면 「리왕비면하의 공진회어슌람」에서는 친잠실에 나가거나 공진회에 참석한 순정효황후의 활동을 보도하고 있다.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는 매년 신년호 1면에 천황 부부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정작 고종 부부와 순종의 부부 사진은 1916년 8월 4일 3면 영친왕의 가례 결정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게재되었다. 이와 같은 부부 초상이 대중에게 유포된 것은 1907년경으로, 순종이 황제권을 양위 받은 후 일본이 의도적으로 순종의 등극을 선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일본에서 메이지 천황 부부의 초상을 전국 학교에 배

¹⁰ 권행가, 「明成皇后와 國母의 표상」, 『미술사연구』21(2007), pp.211-212.



포하고 예배의식을 만들었듯이 순종의 초상도 각 학교에 배포했으나¹¹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일본의 천황과 황후 초상으로 바뀐다. 일본 황실의 가족도상이 메이지 시대부터 황통계승의 정당성과 근대가족의 표본으로 제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조선 왕실의 가족도상은 일본 황족과 결혼한 영친왕에 이르러서야 공식화된 일부일처제로 전형화된 부부상을 보여준다. 앞서 영친왕의 사진이 고종, 순종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비 사진 역시 영친왕의 부인인 마사코(方子) 여왕이 엄비와 순정효황후의 사진에 비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 황후 사진에서 쇼켄 황후와 데이메이 황후가 황실 여성 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마사코 여왕은 『매일신보』 1916년 8월 3일 2면의 「李王世子殿下御婚儀」¹² 기사에서 영친왕과 함께 게재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사에서 확인된다.

4. 조선 왕실 가족 이미지

1910년대는 『매일신보』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자리매김하는 시기로, 메이

¹¹ 권행가, 앞의 글(2007), pp.221-222.

지 천황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을 비롯하여 立太子禮, 내선병합기념식 등 각종 기념일과 천황 및 황족의 동향 소개, 관공서의 공식 활동 등을 적극 보도한다.¹² 이는 조선 왕실과 관련한 기사가 왕실 일가의 일상적인 소식을 전하는 기사로 한정된 것과 비교되는데, 조선 왕실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왕실 일가의 사진이 『매일신보』에 처음 게재된 것은 1911년 2월 5일자 2면으로, 「李王家職分課」 기사에 이왕전하(순종)는 육군 대장, 왕세자전하(영친왕)는 육군 중장이라는 관등이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새롭게 임명된 이왕가 官吏의 官等과 分課를 알리는 기사에 이강(의친왕), 이희(홍친왕)의 사진과 함께 1단 크기로 실렸다.¹³ 이후 1911년 7월 21일 2면에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다룬 기사 「德壽宮嚴妃薨」와 1911년 7월 23일 2면의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도쿄에서 일시 귀국한 영친왕의 소식을 전하는 「今日入京 王世子殿下」에도 각각 어머니와 이왕세자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조선 왕실 인물 가운데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영친왕으로, 『매일신보』 1916년 8월 4일자 3면에서는 영친왕과 일본 황족 마사코의 결혼 소식 기사와 함께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 부부와 순종, 순종비를 동일한 크기로 게재했는데, 이는 순종과 황족인 나시모토노미야를 동등한 위치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일본 황실의 가족사진이 1면에 게재된 것과 달리 영친왕의 가족사진은 3면에 배치되어 있다.¹⁴ 이후 일본에서 유학한 영친왕의 일본 내 동정을 보도하거나, 그가 일시 귀국한 1918년에는 귀국 이후의 활동을 매일 사진기사로 보도했다. 예를 들어, 1918년 1월 21일 2면에는 「20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이왕가 가족 일본 요리 시식 기념촬영(二十日德壽宮石造殿に於ける李王御一族日本料理御試食の記念撮影)」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사진은 고종을 중심으로 순종과 순정효황후, 영친왕, 덕혜옹주가 일본 요리로 식사를 한 후, 덕수궁 석조전 내부를 배경으로 촬영한 것으로 영친왕의 귀국을 기념하며 찍은 가족사진이다.

한편,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는 영친왕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대체로 같은 날짜, 혹은 하루의 간격을 두고 사진을 게재했는데, 예를 들어 『경성일보』 1918년 1월 17일 2면에 실린 왕세자의 六宮 展謁을 보도한 사진은 다음날인 1월 18일

¹² 김선영, 앞의 글(2010), p.43.

¹³ 홍은미, 「일제강점기 한·일 황실사진 비교연구: 『매일신보』에 게재된 한일황실사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16-17.

¹⁴ 홍은미, 위의 글(2007), p.22.

『매일신보』 1면에 동일한 사진과 프레임으로 게재되었다. 『경성일보』 1월 18일 3면^{도5-1}에 수록된 왕세자의 洪陵 참배 기사에는 사각 프레임의 홍릉 사진과 타원형의 왕세자 전신 사진이 함께 실렸는데, 『매일신보』는 두 사진을 각각 1월 18일 3면과 1월 19일 1면^{도5-2, 5-3}에 나누어 실었다.

IV. 맺음말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1910년부터 1919년 사이에 보도된 한일 왕실 관련 기사 및 이미지는 모두 3,000여 건에 이른다. 『경성일보』에 게재된 기사의 경우 수적으로는 『매일신보』에 못 미쳤으나, 조간과 석간, 호외, 시내, 지방판 등 다양한 판, 면, 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된 『경성일보』의 주요 기사, 사진, 삽화 등은 같은 날짜 혹은 하루 정도의 짧은 간격을 두고 『매일신보』를 비롯한 여타의 신문들에 재게재 되었다.¹⁵ 『경성일보』와 달리 조선인을 주요 독자로 했던 『매일신보』는 민심을 고려하여 일본 황실과 조선총독부의 和親 및 선정을 선전하기 위한 기사를 왕실의 ‘行幸’, ‘謁見’, ‘下賜’와 같은 대소사로 포장하여 상세하게 보도했다. 또한, 용어에서 일본은 ‘황실’, ‘하사’, 조선은 ‘이왕가’, ‘창덕궁’, ‘덕수궁’, ‘헌상’과 같이 격하된 용어를 공식화함으로써 위계상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을 적극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경성일보』는 주요 독자를 재조선 일본인에 두었기 때문에 황실을 포함한 ‘내지’로 표현한 일본 내의 주요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



永徵園御展謁
王世子 殿下は十七日 洪陵参拝に次いで
生誕の日に参拝せられた、場所は洪陵の少し手前から右へ
入ったところである。

5-1

「永徵園御展謁」

『京城日報』 1918. 1. 18. [3]

¹⁵ 그러나 이러한 수적 불균형의 원인은 『경성일보』 초기 지면의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황족의 조선 방문이나 조선 왕실 관련 인물들의 도쿄 방문 기사의 경우, 『매일신보』에 게재되지 않은 사진이나 단신 기사가 『경성일보』에는 보도되는 경우도 있어, 『경성일보』의 경우에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지면이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5-2
「세조연하홍릉봉심」
『毎日申報』 1918. 1. 18. [3]

5-3
「永徽園御展謁時에 特히 御
感이 彌中 皇子王世子殿下」
『毎日申報』 1918. 1. 19. [1]



어 시까지 단독으로 게재된 공식 이미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양 신문에 게재된 일본 황실의 결혼식이나 결혼기념일, 장례식과 같은 황실 패전트를 담은 사진 이미지는 ‘만세일제’ 이념에 입각한 근대화된 가족도상을 각인시키고 유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조선 왕실의 경우 본래 가지고 있던 전통적 개념의 왕실 이미지 구축 및 유통의 측면이 아닌 일본 황실의 방계로서 조선 왕실을 흡수하여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데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1910년대 일본 황실 관련 기사와 이미지 가운데 황실과 동일시된 건축물과 관련한 이미지는 거의 보도된 바 없으나, 조선의 궁궐은 기존의 聖所 이미지를 깨고 식물원, 동물원과 같이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

져 있어, 한일 모두에서 왕실과 관련해 게재된 기사와 이미지 자체의 건수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신문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지만 왕실 관련 기사 및 이미지를 다루는 관점과 성격에서 차이를 보여 흥미롭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 정리한 한일 왕실 관련 기사와 이미지는 내용상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행·장례·혼례 등을 포함한 대소사, 둘째, 조선 왕실과 일본 황실의 인물사진, 셋째, 공진회나 박람회장, 혹은 유흥지로서 비춰진 궁궐 이미지이다. 이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인물사진과 궁궐 관련 이미지 자료는 한일 강제 병합 직후인 1910년대 한일 왕실 이미지의 형성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사료된다.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게재된 한일 왕실 관련 인물 기사와 이미지를 분석해 보면 두 신문 모두 황후를 포함한 ‘가족’으로서의 황실사진이 많이 보도된 것과 달리 조선 왕실은 남성을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이강과 내선일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영친왕 이은을 제외하고는 거의 조명되지 않았으며, 특히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은 1910년 8월 한일 강제 병합 이후 1926년 붕

락하며 무기력한 왕조의 이미지와 중첩해 유통되었다. 일례로 1919년 고종이 승하한 이래 보도된 『매일신보』 5월 11일자 3면 기사에서는 ‘寂寂한 德壽宮 봄비는 실 같은 데 궁문은 굳게 닫혀’라는 제목으로 조선 왕실이 상종의 근신이라는 이유로 문을 닫고, ‘유락지’로서의 기능을 중단한 것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신문이라는 ‘공식적’인 대중매체를 통해 ‘사건’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이라고 믿어진 기사와 이미지들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 조작되면서 식민지 정책에 이바지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근대기 왕실미술사 연구 분야의 한 영역으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20년대부터 위 신문들이 폐간되는 1945년까지의 모든 한일 왕실 관련 기사와 이미지 자료의 목록화가 순차적으로 완료된다면, 이들 자료를 근간으로 1920년대에 창간된 민족지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keywords

왕실 imperial court, 대한제국 Korean Empire, 패전트 pageant, 경성일보 *Kyeongseong Ilbo*, 매일신보 *Maeil Sinbo*

투고일 2013년 3월 8일 | 심사일 2013년 4월 5일 |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12일

- 『京城日報 *Kyeongseong Ilbo*』, 서울: 한국학술정보 Seoul: Korean Studies Information, 2010.
- 『毎日申報 *Maeil Sinbo*』, 서울: 경인문화사 Seoul: Kyung-in Publishing Co., 1976.

논저

- 권행가 Kwon, Heangga, 「明成皇后와 國母의 표상 Representation of Empress Myeongseong as the Mother of the Nation」, 『미술사연구 *Misulsayeongu*』21, 2007.
- 김선영 Kim, Sunyoung, 「신문사진의 등장과 한국 근대대중의 출현: 1910년대 『毎日申報』 군중사진을 중심으로 Emergence of the modern Korean people in newspaper photos: A study on crowd photos in the 1910s」 *Meail Shinbo*,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Diss. for the master's degree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 2010.
- 김순전 외 12명 공저 Kim, Sunjun et als., 『수신하는 제국: 명치 · 대정기 『심상소학 수신서』 연구 *A Study of Textbooks of Morals in the Meiji and Taisyo Eras*』, 서울: 제인앤씨 Seoul: J&C, 2004.
- 김영희 Kim, Younghee, 「일제 지배시기 한국인의 신문접촉 경향 The Trends in Newspapers Exposure of Korean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Imperialism」, 『한국언론학보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46-1, 2001, 12.
- 김진두 Kim, Jindu, 「1910년대 『매일신보』의 성격에 관한 연구: 사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eil Shinbo' in Korea 1910」,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Diss. for the Ph.D. degree of Chungang University, 1995.
- 수요역사연구회 편 Historian of Wednesday ed.,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 1910년대 *The Colonial Joseon and Maeil Sin Bo: 1910s*』, 서울: 신서원 Seoul: Sinseowon, 2003.
- 유모토 고이치, 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옮김 Yumoto, Koichi, Suyunomo Trans., 『일본 근대의 풍경 *The modern scenery of Japan*』, 서울: 그린비 Seoul: Greenbee, 2004.
- 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 · 언어학과 역 Wakakuwa, Midori,

Ku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Japanese Culture&Language
Trans., 『황후의 초상: 쇼켄황태후의 표상과 여성의 국민화 *Portraits of
Shouken empress*』, 서울: 소명출판 Seoul: Somyong Publishing Co.,
2007.

홍은미 Hong, Eunmee, 「일제강점기 한·일 황실사진 비교연구: 『매일신보』에
게재된 한일황실사진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ictures of
Korean & Japanese Royal Fami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ile」,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iss. for the master's degree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7.

Formation and Circulation of the Images
of the Korean and Japanese Royal Families in the 1910s
A List of the Articles and Photographs of the Korean and
Japanese Royal Families in *Kyeongseong Ilbo* and *Maeil Sinbo*

Hwang, Binna/Lee, Sungrye/Kim, Jihye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1910s made it compulsory for its government agencies to circulate its two organs, *Kyeongseong Ilbo* and *Maeil Sinbo*. The two newspapers maintained distincti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ormat and character of the articles covering the royal families of Korea and Japan. As for *Maeil Sinbo*, a majority of whose subscribers were Koreans, tended to prefer words such as “royal(or imperial) tour”, “royal audience”, and “royal gift” to propagate the friendship and good rule of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an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eanwhile, *Kyeongseong Ilbo*, whose readers were mostly Japanese people settled in Korea, was more focused on delivering the latest news of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and others in the Inner Land(i.e. Japanese Archipelago) and hence carried comparatively fewer reports or photographs of the royal families except for the New Year’s Day issue.

An analysis of the reports and photographs of the Korean and Japanese royal families published in *Kyeongseong Ilbo* and *Maeil Sinbo* showed that for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almost all the important imperial family members were covered on a regular basis while for the Korean royal family only top male members attracted their attention. The newspapers payed, in fact, little attention to the members of the Korean royal family except for Yi Gang and his younger brother Yi Eun who was later granted the title King Yeongchin and regarded as a symbol for the “Integration of Korea and Japan”. What is remarkable is

that both newspapers had not published even a single photograph of Emperor Sunjong, the last monarch of the Korean Empire, from August 1910 when Japan annexed Korea to his death in 1926. The photographs of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depicting the pageantry of various family occasions such as wedding, anniversary and funeral, were used to promote and publish the image of a modern family based on the traditional belief of Japanese people in the “Unbroken Imperial Geneology of Ten Thousand Generations” whereas those of the Korean royals were exploited, not to consolidate or promote the Korean tradition and heritage they represent, but to stress that the Korean imperial family was a collateral line to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Similarly, the two daily newspapers shied from publishing any image of architectural works connected with the Japanese imperial family during the 1910s while reporting voraciously about the Korean royal palaces that were, just like their rightful owners, degenerated into a zoo or a botanic garden flung open to the general public. These textual and visual reports circulated through “official” media such as newspapers vividly show tha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able to effectively control and manipulate them to implement powerful colonial policies against Korea and Korean people. That explains why the materials contained in these and other newspapers of the period need to be carefully reviewed for the study of the art of the Korean royal court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If all the reports and photographs produced by the two newspapers between the 1920s and 1945, the year when the newspapers were closed following the surrender of Imperial Japan to the Allied Powers in the same year, are properly documented, these would be profitably used for a comprehensive comparison with the materials produced by the two newspapers, *Chosun Ilbo* and *Donga Ilbo*, launched during the 1920s by Korean investors.